

배포 일시	2022. 6. 2.(목)		
담당 부서 <총괄>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	책임자	과 장 문유진 (02-2131-2020)
		담당자	사무관 송상민 (02-2131-2038)
보도일시	2022년 6월 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2.(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용산공원 시범개방으로 더 가까이 국민을 맞이하겠습니다

- 10일부터 시범개방, 방문객 편의시설 대폭 확충·국민의견으로 공원 조성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용산공원을 찾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다.

* 첫 입장은 6.10(금), 11:00 / 마지막 입장은 6.19(일), 13:00 (15:00 퇴장)

○ 이번 시범 개방은 당초 5월 25일부터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120여 년 만에 문을 여는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자 그늘막, 벤치, 식음료 등 편의시설을 확충·보완하여 국민을 맞이하게 되었다.

○ 시범 개방 부지는 신용산역에서 시작하여 장군숙소와 대통령실 남측 구역을 지나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km의 대규모 공간이다.

□ 이번에 시범적으로 개방하는 부지는 대통령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며, 4가지 주제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진다.

○ 4가지 주제는 국민의 첫걸음을 맞이하는 군악대·의장대의 환영식을 볼 수 있는 ‘①국민이 열다’,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②국민과 걷다’, 대통령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③국민과 만나다’, 드넓게 펼쳐진 광장에서 미래 용산공원의 모습을 채워가는 ‘④국민이 만들다’ 등이다.

< 4가지 주제별 주요 볼거리(예시) >

	
(국민이 열다) 의장대 환영행사	(국민과 걷다) 문화·역사 탐방 산책
	
(국민과 만나다) 대통령 앞뜰 방문	(국민이 만든다) 국민이 채워가는 공간

□ 그리고, 방문객은 과거 미군들이 사용하던 장군숙소, 대통령실 남측구역, 스포츠필드 등 특색있는 구역을 둘러볼 수 있다.

○ (장군숙소) 시범 개방의 시작점이자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이 구역은 무성한 나무 그늘 아래 방문객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이다. 곳곳에 벤치를 배치하고, 시멘트 조각과 구덩이와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여 쾌적하게 걸으며 주변을 감상할 수 있다.

○ (대통령실 남측구역) 탁 트인 풍광과 함께 길쭉으로 늘어선 플라타너스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대통령실 남측 구역은 식음료 코너가 있는 휴게공간(일명 ‘카페거리’)으로,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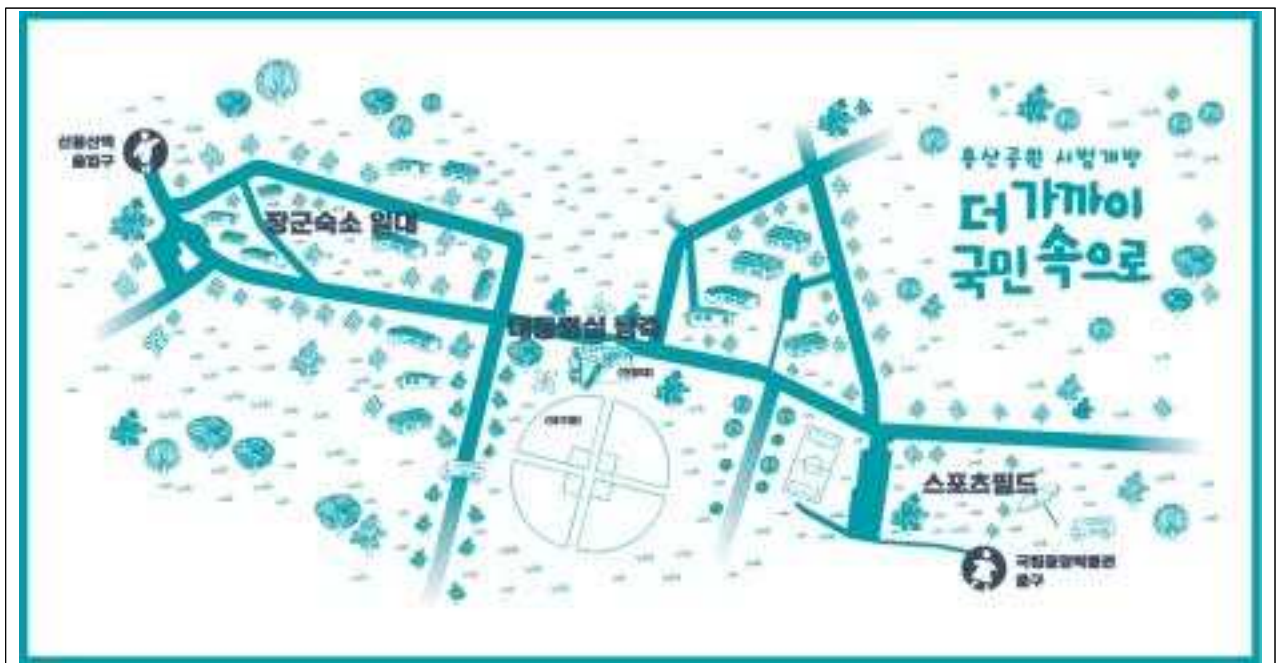
- 특히, 이 구역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실 앞뜰 방문 프로그램은 대통령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용산공원을 찾은 국민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이곳에서는 15분마다 40명까지 선착순*으로 대통령실 앞뜰에 입장하여, 헬기와 특수 차량 등 쉽게 볼 수 없는 대통령 경호장비를 관람할 수 있다.

* 별도 접수처(야구장 인근)에서 선착순 번호표를 배부하며, 번호표 배부 시 입장시간 안내

- (스포츠필드) 푸드트럭, 간이의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있는 방문객을 위한 쉼터 공간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20m 초대형 그늘막은 시원한 그늘과 함께 인상적인 광경을 연출하여 사진찍기 좋은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시범개방 부지 전역에 설치된 경청우체통을 통해 용산공원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견을 모아 이후 공원 조성에 적극 반영해 갈 계획이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전동차(6대), 현장 안내부스(5개소), 다양한 안내 표지판 등을 통해 방문객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 용산공원 시범개방 주요 구역 >



- 이번 시범 개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월 3일(금) 오후 2시 정각부터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 누리집* 3곳에서 동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예약(아래 예약방법 참고)을 통해 6월 5일(일) 오후 2시 정각부터 5일 후의 방문날짜를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다.

*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 누리집 바로가기(www.yongsanparkstory.kr,
www.yongsanparkstory.com, www.yongsanparkstory.net)

< 예약 방법 >

- ①안내 누리집의 예약 버튼(링크) 또는 네이버 검색(용산공원 시범개방)하여 예약 페이지 접속
- ②「용산공원 시범개방」 확인 후, 날짜와 회차 선택
- ③신청정보 입력(동반인원, 전화번호 등)
- ④예약하기 버튼 클릭

○ 매일 5회차(9시, 11시, 13시, 15시, 17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회차별로 500명, 하루 최대 2,500명이 관람이 가능하다.

- 예를 들어 방문 희망일이 13일이라면, 그로부터 5일 전(주말 포함)인 8일 오후 2시 정각부터 예약할 수 있다. 선착순 접수이므로 예약 결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잔여석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5일 이내도 선택할 수 있다.

- 방문 시 예약자 본인과 대통령실 앞뜰 방문 희망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만 14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는 신분증 없이 보호자(부모·인솔교사)와 동반하는 경우 입장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 학생증을 지참해야 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범개방은 장기간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용산기지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 “120여 년만에 돌아온 용산공원이 비로소 국민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주신 의견을 용산공원 조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용산공원 시범개방과 함께, 상시 운영되는 장교숙소 5단지(서빙고역 인근)도 개방 공간을 확대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미래 용산공원을 체감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 `20년 7월부터 6개동을 전시공간 등으로 개방(전체 18개동)하여 국민이 찾는 명소가 된 장교숙소 5단지는, 어린이 도서관, 실내놀이터, 실내 휴게공간,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된 4개 동을 6월 10일부터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 * 별도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에서 토요일 개방(09시~18시, 17시 입장 마감)
- 용산공원 시범개방과 장교숙소 5단지 확대 개방을 통해, 용산공원이 더욱 많은 국민이 찾고 공원의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족 쉼터 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총괄>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기획총괄과	책임자	과 장	문유진 (02-2131-2020)
		담당자	사무관	송상민 (02-2131-2038)
담당 부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용연 (02-2131-2030)
		담당자	사무관	정성훈 (02-2131-2032)



〈 주요 예상 질문 〉

- 방문 예약 신청 시 최대 인원은 몇 명인가요?
⇒ 방문신청자를 포함하여 최대 6인까지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문신청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같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 반려동물도 입장할 수 있나요?
⇒ 관람객의 편안한 이용을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은 제한됩니다.
- 사진 촬영은 모든 곳에서 가능한가요?
⇒ 자유롭게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실 앞뜰 방문 시에는 사진 촬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음식 반입이 가능한가요?
⇒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병 음료와 주류 이외에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음은 지정된 구역(푸드트럭 인근)에서만 가능합니다.
- 시범개방 기간 이후에도 용산공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 시범개방 기간에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단, 시범개방 이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오픈 예정입니다.
- 대리예약이 가능한가요?
⇒ 용산공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대리예약이 불가능하며, 현장에서 방문신청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 대기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기예약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예약변경이 가능한가요?
⇒ 방문일, 신청자, 동반인원 등 신청정보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을 희망하시는 경우 예약취소 후 다른 일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 가파라, 국민 속으로
용산공원 시범개방

이 곳부터 시민 여러분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실과 용산역사박물관 등 계획도시의 중심을 연결하는 길목에
수많은 문화시설과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을 시민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하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용산역사박물관을 비롯해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참고 사항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문의처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처
02-2600-1111 / 02-2600-1112 / 02-2600-1113 / 02-2600-1114
02-2600-1115 / 02-2600-1116

용산공원 시범개방
한도시 산책로를 지향하세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참고 사항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문의처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처
02-2600-1111 / 02-2600-1112 / 02-2600-1113 / 02-2600-1114
02-2600-1115 / 02-2600-1116

용산공원 시범개방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2022.05.10. - 05.19.

참고 사항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문의처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처
02-2600-1111 / 02-2600-1112 / 02-2600-1113 / 02-2600-1114
02-2600-1115 / 02-2600-1116

국민이 뭉다

1. 용산역사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2. 국민이 뭉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3. 용산역사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4. 용산역사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공원 시범개방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참고 사항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문의처

용산공원 시범개방 안내처
02-2600-1111 / 02-2600-1112 / 02-2600-1113 / 02-2600-1114
02-2600-1115 / 02-2600-1116

국민이 뭉다

1. 용산역사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2. 국민이 뭉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3. 용산역사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4. 용산역사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